

21세기 세계적인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

제1차 경제개발과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의 가스산업은 두번에 걸친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정부의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에 힘입어 그 사용량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편리성 추구하고 청정연료 선호로 가스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체 가구의 약 98%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Green Round 등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산업분야에서도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연료용 가스의 수요는 약 1,270만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수요의 양적 증가와 함께 가스사고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한해동안 총 577건의 크고 작은 가스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스별로는 LPG가 49.9%로 전체사고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가 45.8%, 일반가스가 4.3%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렇듯 가스는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고급연료인 반면에 잘못 사용하였을 경우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러한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4년 “고압가스보안협회”로부터 발족된 이후, 가스안전 파수꾼으로서 가스안전문화의 정착과 가스안전기술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시설위주의 단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경영전반에 관한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로 전환하였으며, 공사의 조직과 인력도 대폭 보강하여 제2의 창업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

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스안전에 관한 각종 사업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의 정착

가스안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현행 가스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 정비하여 선진 가스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른바 GSMS(Gas Safety Management System)는 기업활동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경영방침, 안전조직, 교육훈련체계등 12개의 요소에 관한 시스템 운용규정을 작성, 시행하며 반복적인 시스템의 평가와 운용규정의 수정, 보완을 통해 안전관리효율을 향상시키는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GSMS 모델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를 모델로 자체실정에 적합한 GSMS를 개발하여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심사를 받은 후 시범적용과 수정 과정을 거쳐 최적 GSMS를 구축하게 됩니다.

GSMS는 도시가스분야(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의 모든 사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액화석유가스 및 일반가스분야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GSMS 도입으로 관리기법의 과학화, 성과분석의 계량화로 안전관리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2000년 이전에 가스시설의 안전도가 선진

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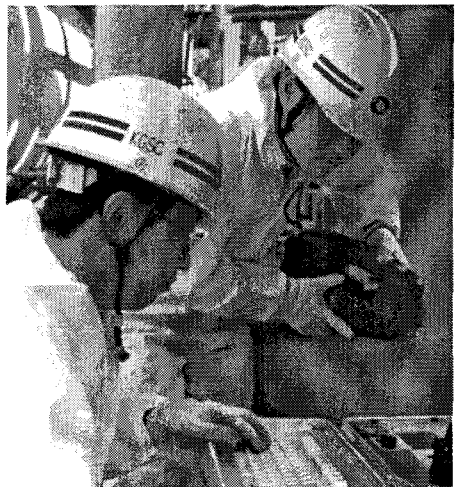
● 법정검사등 위탁업무의 책임 완수

정부에서 부과한 “가스안전관리 무한책임”을 추호의 착오도 없이 완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LPG 충전소등 가스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정기검사와 가스렌지, 용기, 냉동기 등의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설계에서 완공단계까지 시공감리를 실시하고, 도시가스 매물배관에 대한 기밀시험 실시와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가스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우려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가스사업자 4,000여개소에 대하여 수시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취약시설에 대한 가스사고



가스시설에 대한 각종 검사와 지속적인 기술지도로 업계의 가스안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예방활동 강화

법정검사함으로써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취약 시설 또는 비법정검사대상시설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우기 등에 발생하기 쉬운 지반침하나 가스시설 이완현상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배관이나 가스공급 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요식업소에 대한 무료점검 및 일반가정의 요청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해 및 침수지역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사고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사고조사 및 재해분석업무

가스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본사를 비롯하여 전국 15지사 11출장소에 24시간 상 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원인의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위하여 공사 및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스사고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발간·배포하고 유사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형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대단위 석유화학플랜트에 대한 안전진단

대형사고 우려시설에 대한 위 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석유화학 플랜트에 대한 정기적 안전진단은 물론 안전진단 기술수준의 국제화를 위하여 외국기관과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선진외국의 진단메뉴얼을 도입중에 있으며, 압 력용기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압력용기 검사원자격취 득 및 ASME 스탬프 인정기관 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도개선 연구

가스관계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업계 간담회 및 현장실 태조사를 통하여 제도의 현장적 응성을 제고하고 “가스안전기술 심의위원회”의 활성화로 가스안 전기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 및 전문검사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 부검사기준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법령 및 고시의 제·개정 내용을 조기에 전파하기 위해 법 령집 및 고시집을 인쇄·배포하 고 있습니다.

● 가스안전기술의 연구개발

21세기 가스안전관리 전문기술기관으로 정착,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 국의 기술이나 제도를 무조건 도입, 적용하기 보다는 우리 환경에 맞 추어 단계적으로 조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따라서 가스로 인한 위해를 최소화하고 가스 안전관리 기술의 전문화 를 효율적으로 추구하고 고품질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가스안전기술연구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연구센터에서는 GSMS의 개 발 보급의 시행안에 대한 심사 및 이행실태의 정기적 평가, 안전관 리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및 D/B 구축, 기타 독성가스 재해예방 등 에 관한 안전기술연구 및 보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업무의 국제화에 대 응하기 위해 ISO 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스안전 교육 및 홍보

가스안전문화의 정착은 공급 자, 시공자의 의지는 물론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실천이 병행될 때 가능한 것이므로 교육·홍보 업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교육은 가스설계의 안 전관리자들에 대해 실시하는 법 정교육, 양성교육, 보수교육, 위탁 교육과정 등이 있으며, 79년부터 95 년말까지 양성교육 이수자 50,820 명, 법정교육 이수자 1,084,193명 을 배출하였습니다.

홍보의 경우 사용자 취급부주 의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여 TV, 라디오, 신문등 대 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가스사 용자는 물론 전 국민이 가스안전 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홍보계몽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는 가스안전에 관한 사업과 정부 가 부과한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추호의 착오도 없이 완수함은 물론, 선진가스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관료주의의 구 각을 벗어나 대국민 봉사정신을 일신하여 진정한 “가스안전 서비 스키관”으로 거듭 태어남으로써 오는 21세기에는 세계적인 안전 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 해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그동안 축적해 놓은 기술과 경험을 토대 로 “가스안전관리 종합체계”를 조 기에 정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S)